

꾸준한 관찰과 관리, 기본이자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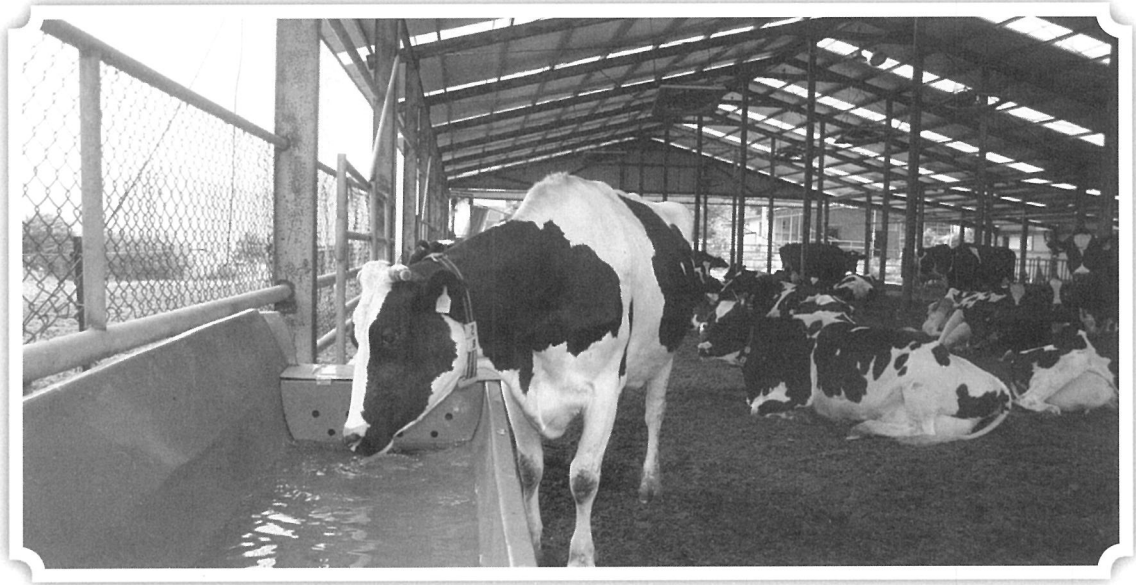
고종열
TMR 연구회장
농학박사

해마다 젖소는 하절기 스트레스와 혹한기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 특히 혹한기는 작년 최악의 더위 스트레스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가을이 짧아지고 겨울철 추위에 빨리 접하게 되어 건강회복이 쉽지 않다. 그동안 사양관리, 시설 환경 관리 등 많은 자구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젖소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속적이고도 안정된 목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낙농가 사양관리의 기본자세, 마음가짐을 언급하고자 한다.

기본에 충실하자

젖소는 초식 가축

상식적이지만 젖소는 초식가축으로 반추동물이다. 조사료를 충분히 먹어야 한다. 특히 젖소는 우유 생산과 번식을 위해서 충분한 조사료를 먹어야 한다. 비유초기 고능력우 산유량을 위해 배합사료 급여량에만 초점을 맞추면 소화기 문제가 발생되어 생산성도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조기 도태로 경제수명 단축으로 이어진다. 고능력우일수록 양질의 조사료를 충분히 먹으며 배합사료를 접근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물 공급이 중요

우유의 88%는 물이기 때문에 젖소에게 양질의 물 급여는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이다. 소가 섭취하는 물에 이상물질이 많으면 물맛이 떨어져 음수량이 줄어들며, 결국 건물섭취량 저하로 산유량도 감소하므로, 정기적인 물 분석을 통해 항상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다.

소를 편하게 해주자

소화생리에 맞는 사양관리가 필요

젖소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최대로 끌어 올리려면, 소위 발효탱크라고 하는 반추위가 안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추위내 산도(pH)가 6 이상을 유지하여 섬유소를 분해하는 미생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충분한 조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구입TMR은 물론, 자가TMR을 급여할 때도 반드시 조사료를 추가로 급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육성우나 건유우는 종일 조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유급여 한다.

건강한 반추위관리에 노력해야

소가 편하기 위해서는 반추위가 건강해야 한다. 양질의 충분한 조사료 급여와 비구조탄수화물(전분)원 즉, 배합사료 과다급여에 유의한다. 소화율이 높고 섬유질이 풍부한 비트펄프를 일일 두당 2.5kg 급여하며, 발효사료 급여를 적극 검토한다. 완충제로서 중조는 일일 두당 100g 급여한다.

변경 요인을 최소화해야

조사료는 물론이거니와 가급적 배합사료와 보조원료 등의 변경요인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건강한 젖소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제대로 입증되지도 않은 새로운 원료를 수시로 적용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니터링에 충실하자

잘 먹는지 확인

TMR이든 배합사료든 기호성, 섭취량을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잘 먹는 사료가 좋은 사료이고, 잘 먹는 소가 건강한 소고, 잘 먹는 소가 생산성도 좋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소똥상태는 어떤지 관찰

급여하는 사료의 품질과 사료급여량이 적당한지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가 배설하는 똥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원료, 사료일지라도 소똥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반대로 저렴한 사료일지라도 소똥이 좋으면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소똥이 좋으려면 적정 조사료 비율과 TMR 발효사료의 발효상태 점검은 필수이다.



자세가 편안한지 항시 확인

휴식장에 있는 소들이 전반적으로 서있는지, 편히 앉아서 되새김하고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서있으면 에너지 소비도 문제지만 무엇인가 불편한 시설 환경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신속한 원인파악과 개선이 필요하다. 소가 편하게 앉아있다면 최적의 환경조건으로 생산성은 당연히 좋아진다.

고정관념을 버리자

관행 · 고집에서 탈피

설사, 호흡기 예방과 건강한 어린송아지 육성을 위해서는 잘 마른 충분한 깔짚을 깔아 주어야 하며 특히 송아지 다리와 발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아주어야 한다고 늘상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목장의 실상은 어떠한가. 과거 경험과 관행도 귀한 가치이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의 집착과 쓸데없는 고집은 목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 똥고집에서 벗어나자!

발상의 전환 필요

생존하는 목장이 되기 위해서, 미래 새로운 시대를 리드하는 목장주가 되기 위해서는 창조적 사고의 플레이어가 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낙농 선진국의 낙농 연구자료와 유명 사료회사 전문가가 권장하는 젖소 사양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 등을 학습,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교육참여, 낙농가 소모임 참여, 인터넷 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낙농산업의 어려운 시기, 봄철 환절기 즈음에 목장의 안정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낙농가 사양관리의 기본자세인 마음가짐을 기술하였다. 낙농가 여러분의 안정적인 목장의 지속경영에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한다. ☺